

# '지식의 힘' 부각한 가상역사소설

복거일의 장편 「역사속의 나그네」

역사에 있어 '만일'이란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들 한다. 또, 그런 가정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나아가 역사관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적인 충고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이런 '만일'이란 질문에서 출발하는 '대체역사'를 꿈꾸어 본다. 그것이 개인의 역사에 관한 것이건, 아니면 한 민족국가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건간에 그러한 꿈과 미래는 지금보다는 좀더 나아진 어떤 상태를 향한 것이다. 소설을 통해 이런 대체역사를 탐구해보는 작가 중에서 복거일은 가장 선두에 서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문학에 위대한 한 문학가의 출현”을 예고한 작품 「비명을 찾아서」는 꼼꼼하고 독특한 문체와 새로운 주제의식으로 그를 주목받는 작가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가 「비명을 찾아서」라는 작품에서 보여준 '대체역사'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사속의 나그네」 1,2,3권이다. 작가 자신의 말을 통해 '힘'이 아닌 '지식'을 바탕으로 한 무협지를 쓰고자 했다.

2000년대 통일된 한반도의 사람인 이연오는 자기시대에 불시착한 시낭(타입머신) 가마우지호의 조종사로 선발되어 1000년대 조선땅에 불시착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역사줄기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아무런 본능적인 행동도 하지 않으나, 결국에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역사를 현실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조선인들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끝에 조선조의 불합리한 신분질서나 제도에 대한 혁명의 깃발을 세우게 된다.

이런 기본 줄거리 위에, 조선땅에서 만난 여인들과의 애절한 사랑과 이별, 사이사이 스쳐가는 자기시대에 두고온 만삭의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 못한 자식, 자신의 역사의 줄기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아이는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가능성의 역사 속으로 빨려들게 될 것이란 사실에 관한 심각한 고민 등이 끼여든다.

책소개를 보고 서점에 나가 이 책들을 사오고 단숨에 읽어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진짜 무협지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무협지처럼 확실하게 주인공의 영웅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나에게 우유부단하며, 사실 가지고 있는 지식의 내용도 단편적인 주인공 이연오는 조금은 실망스런 인물이었다. 어쩌면 한 인물로 인해 역사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내 기대 자체가 비역사적인 생각이

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가가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대체역사를 그려나간 것은 현명한 접근인 듯하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에 앙금처럼 남는 것들이 있다.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걸 보고 싶다는 바람, 조금은 더 건강하고 확신있는 역사의식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이연오가 살았던 2078년과 현대가 거의 아무런 차이도 느낄 수 없다는 점, 또한 500여년이나 떨어진 세계와 세계간에 별다른 격차가 없이 그려진 것 등등에 대한 아쉬움...

## 박경숙

서울 용산구 한남2동 713-2

## 「미국인의 생활과 실용주의」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이 막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지 않아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혁과정에서 미국이 수행한 기여란 젊은 세대에게는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실망감마저도 주었다. 더욱이 미국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이 민족현실의 주체적인 극복이라는 시대이념에 맞아떨어진 것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는 동떨어지게, 우리네 문화풍습에는 미국의 대중문화가 깊숙이 침투되었다는 사실이 쉽게 목도된다. 이런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은 보다 더 철저한 미국이해를 요구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이런 인식의 필요성의 근거에는 무엇보다 미국문화를 하나의 문명으로 파악, 그 문명의 이론적 토대를 더듬어 살펴보아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모든 문명에는 그 나름대로 이론적 이해틀인 철학사상이 필요하고, 미국문명도 예외없이 이러한 인식틀로 요구된다. 두말할 나위없이 미국문명의 인식틀은 실용주의가 대두된다. 따라서 실용주의가 미국적 생활방식에 어떻게 적용, 유럽의 생활방식과 대조되어 발전되었는가를 추적해본 것이 「미국인의 생활과 실용주의」(이보형 외 지음, 민음사)의 주된 문제의식이다.

편저자의 의도 때문인지 집필자 모두는 미국인의 삶의 태도는 실용주의적이라는 데 나름대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듯하다. 나아가 실용주의를 하나의 철학적 학설로 보지 않고 하

나의 폭넓은 의미, 즉 생활태도로 보고 있는데 이런 묵시적 동의는 허용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실용주의의 광의적 정의는 미국문화의 보다 철저한 파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즉 명확한 실용주의적 태도에 대한 정의없이 미국인의 생활을 검토하는 것은 여러 사회학적, 인류학적 사실들을 드러낼 수 있어도 이러한 구체적 사실과 실용주의적 입장과의 관계를 불투명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인식틀에서 쉽게 간과하기 쉬운 점은 미국문화의 시대적 차이성, 예를 들면 미국 사회가 겪는 구조적 변화의 모습을 명확히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느 사상이든지 이런 가변적 현상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처능력의 모습도 우리가 구체적 사실에 덧붙여 보아야 할 사항들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미국 생활의 여러 단면들과 그 사회학적 이론들을 소개, 우리에게 토의할 수 있는 주제거리를 제시한 것만으로 매우 뜻있는 일이고, 이제부터 보다 활발한 토의가 수행되어야 함은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이민수

서울 성북구 정릉 4동 822-15

## 파펜하임 「현대인의 소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는 상존한다. 근세가 중세의 권위주의적 틀을 탈피하기 위해 '코페르니쿠스적 사유전환'이 필요했다면, 인간이성의 보편적 합리성에 대한 막연한 희망에 기대어, 새로운 사회를 꿈꾸던 서양 근대정신은 과거의 행동양식이나 사회적 관계로는 해명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창출한다. 절대주의적 신의 폭력성에 거부된 몸짓을 짓던 인간이성의 자립성, 그에 상응하여 대두된 자연권사상은 현재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규제하는 제반 생활양식과 사회적 관계를 수반한다. 이런 사회현상 속에 쉽게 발견되고, 우리에게 엄습되는 '소외' 현상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극히 근대의 지적, 물질적 산물임을 간과하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소외라는 개념 자체가 그 개념의 기원상 매우 추상적이고 철학적 냄새를 풍긴다. 이렇듯 소외현상에 대한 추상적, 철학

적 파악은 항상 현대인 스스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현실적 공간으로서의 소외현상과는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게 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대인이면 느낄 수 있는 "현실적 체험으로서 소외"는 무엇일까? 프리츠 파펜하임은 「현대인의 소외」(황문수 옮김, 문예출판사)에서 소외를 단순히 학문적 대상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현대사회의 구조 전반에 내재할 수 있는 소외현상들을 낱낱이 찾아낸다.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뚜렷이 느낄 수 있는 저자의 소외관은 다음과 같은 그의 관찰과 전체에 의존하고 있는 듯하다. 첫째, 소외현상은 어느 시대나 지역에 한정될 수 있는 국부적 현상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의 전양식에 내재하고 있는 모순적 현상이다. 또 우리가 겪는 소외현상은 부분 자체로 파악될 수 있는 개체적 현상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킨 유기체적 현상이다. 이런 전체하에서, 저자는 소외현상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듯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겪는 구조적 소외현상뿐만 아니라, 실존주의 등 여러 현상들이 소외를 지시하는 표현들로 이해한다. 둘째, 이미 앞의 주장에서 예견할 수 있듯, 소외의 극복은 오직 '전반적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저자는 교육을 통한 완벽한 인격체의 완성이 소외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또 부분적 사회개조나 새로운 이념체제를 통해 소외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현대를 하나의 문제대상으로 파악한 저자처럼,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이러한 이념적 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문제해결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 정소진

경기도 부천시 심곡 1동 806-9

##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

책읽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더구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고전으로 인정된 문학작품을 읽기란 경우에 따라서 고역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 왜냐하면 고전이란 늘 그 작품을 통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고, 독자는 이 무엇인가를 체득내지 감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우리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은 그 자체의 고정된 의미만을 지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학

# 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좋은 책을 만듭니다

마루별은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책을 만들어 왔기에 책을 소중히 여기는 각 구성원이 있고 매킨토시 기종의 최첨단 DTP시스템 15Set을 보유하여 기존의 복잡한 제작과정을 능숙하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앞서서 만큼 더 큰 만족과 보람을 드릴 것입니다.

## 마루별

<b>디자인</b>	광고·표지·포스터·카타로그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b>입력</b>	빠른 시간내에 처리
<b>편집</b>	교정·교열
<b>출력</b>	매킨토시로 작성된 화일의 출력서비스도 가능함.
<b>제판</b>	원색·단색분해
<b>제작</b>	인쇄 코팅 제본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Tel : 701-2391 (대표) Fax : 701-2395

작품을 독자로 하여금 상상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질료로 파악할 때, 책읽기는 고통이 아닌 즐거움을 낳는 작업처럼 느껴진다. 다시 말하면 문학작품을 저자가 그린 현실은 그 자체로 고정된 배경과 의미만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 '가상적 현실'로 받아들일 때, 독자는 그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그 현실에 정착하면서도 자유롭게 그 현실을 이탈할 수 있는 아득한 힘을 발견한다.

모더니즘의 대표자로 알려진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김중건 옮김, 범우사)도 예외일 수 없다. 비록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평범한 행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고상한 가치나 이념을 찾이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두움이 깔려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 어두움의 근원은 명확히 서술될 수는 없어도 이 평범한 사람들이 행한 행위 속에 있음은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이 가치부재의 표류자들의 단편적 삶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그들의 삶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비관적 삶일까? 부절없고 비합리적인 듯한 부정적 현실은 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매개로 할 때, 그 부정적 현실은 그 현실적 앞에서 깨어날 수 있는 묘한 힘을 얻는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나타난 부정적 인간행위를 체험하면서도, 결코 염세주의적 삶의 모습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은 이들 행위 속에 내재한 미래의 낙관 또는 긍정적 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학작품의 이해가 매우 주관적인 감상에 지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관적 삶이 결코 비관일 수만은 없는 이유는, 조이스가 그리듯 우리 삶 자체가 미지의 미래 때문에 오늘 살아야 하며, 오늘 보람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는 까닭인지도 모른다.

### 김소영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1611동 707호

### 고리끼의 「세상속으로」 외

19세기말과 20세기초를 걸쳐 혁명의 역사적 격동 속에 살았던 러시아의 소설가 고리끼는 이 자서전적 삼부작을 통해 자신의 어린시절, 소년시절, 청년시절을 소설화한다.

1부에서는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면서 그의 종교적 사고 윤리를 그들로 성장하는 막심의 어린시절이 그려지고 있다. 외할머니의 종교적 경건함과 삶을 바라보는 넉넉한 지혜가 어린 막심에게 세상과 자연에 대한 맑고 굳건한 애정의 기반을 만들어 준다.

2부에서 막심은, 소년의 몸으로, 외할머니의 곁을 떠나 일치의 관념성도 허락치 않는, 혁명 전 러시아의 비참한 밀바다 생활을 경험한다. 그의 인간에 대한 관심과 건강한 믿음이 가난과 거짓으로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그의 민중들에 의해 좌초되고 절망한다. 그러나 소외당한 삶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대면하고자 하는 가난한 민중들 각각의 본원적 모습들은 고리끼의 '인간의 선의 힘에 대한 희망'을 일깨운다.

3부에서 그는 세상에 대한 참다운 깨달음을 시작한다. 그것은 총체적이며 확고한 역사에의 인식이었으며, 온몸으로 부딪쳐 우주를 실현하는 민중의 모습이었다.

그가 자라면서 얻는 의식의 성장은 글 전편을 통해 러시아 혁명의 발전과정과 맞물려 흐른다. 그는 자신을 이 소설의 중심인 '나'로 놓으면서도 견고한 '나'의 모습이 아닌, 그가 만나는 '타'에 의해 보완되고 수정되어 가는 인간 본연으로서의 유동적인 '나'로 그린다. 작품의 무게중심은 오히려 '타'에 기울어져 있으며, '타' 또한 고정되거나 고립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생동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언어마저 살아 있는 듯한 고리끼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성실하고 애정어린 묘사의 예술성이 이 작품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완벽한 구현임을 확인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삶에 대한 표현을 인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삶에 대한 불꽃 같은 사랑은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을 박차버리고 싶었다. 그러면 나 자신과 이 모든 것은 즐거운 물레방아처럼 힘차게 돌아갈 것 같았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축제 같은 출판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마련된 그러한 삶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담하며 순결할 것인가."

### 정수진

서울 마포구 성산동 92-20